

다산포럼

당신께서 다 아십니다



김정남 언론인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부영이 보낸 편지를 전병용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은 1987년 3월 중순이었다. 이 편지는 실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해 1월 14일, 서울대 박종철을 고문 치사한 범인으로 같은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조한경 경위는 박종철을 조사하는 조(細)의 반장이기는 했지만 고문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또 다른 고문경관 강진규 경사는 다른 반(班) 소속으로 그들이 찾고 있던 황 아무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왔다가 육초 안에서 박군의 다리 가랑이를 들어주는 보조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편지는 팔다리가 묶인 박군을 뒤에서 붙잡고 억지로 물을 먹이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경관은 따로 있다면서, 그 세 사람의 이름과 직위를 적사하고 있었다. 구속된 두 사람은 사건 후 경찰간부들에게

해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범인으로 지명, 차출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2월 27일, 검사에게 자신들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정과 진짜 고문경관 3명에 대해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서 며칠 후에는 의정부교도소로 이들을 이감시켜 버렸다. 1986년 5월 3일의 인천사태로 수배 중이던 이부영은 그해 10월 하순 불광동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가 체포되어 그때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고, 나는 이부영에 대한 도피방조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 중이었다. 전병용 역시 이부영, 장기표 등 5·3인천사태 수배자들에게 편의와 은신처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쫓기고 있는 몸이었다. 전병용은 내게 편지를 전해 준 며칠 뒤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으니 한마디면 그 편지는 영원히 공중에 뜬 편지였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바로 박종철의 죽음을 이후 그와 관련된 신문 보도를 챙겨 스크랩하고, 이부영의 편지와 인권변호사 그룹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성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실이 입수될 때마다 성명은 수정과 다시

쓰기를 수도 없이 거듭했다. 그해 최종적으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년 기념 명동성당 미사에서 김승훈 신부에 의해 사제단의 이름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그 성명의 마지막 막을 나는 이렇게 썼다. “이 사건 범인 조작의 진실이 박종철 군 고문살인 진상과 함께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의 독재성이 회복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결말이 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진실과 양심, 그리고 인간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관건이 이 사건에 걸려있다.” 5월 18일, 명동성당 미사 때 성명서를 읽는 김승훈 신부의 목소리는 크게 떨리고 있었고 절할 때는 엄숙, 경건했다고 한 해 준 며칠 뒤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으니 한마디면 그 편지는 영원히 공중에 뜬 편지였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바로 박종철의 죽음 이후 그와 관련된 신문 보도를 챙겨 스크랩하고, 이부영의 편지와 인권변호사 그룹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성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실이 입수될 때마다 성명은 수정과 다시

박종철에 대한 물고문을 밝혀낸 부검을 결정, 지시한 것도 이들 형사2부 수사팀이 아니라 공안부장 최환이었다. 3명의 살인고문경관 명단을 진술한 2월 27일로부터 사제단의 성명이 발표된 5월 18일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단가. 이후에도 그들의 은폐와 축소는 계속되었을 뿐이다. 나는 당시의 수사검사가 마치 자신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쓴 책을 보고, 거짓과 위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불의와 기회주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반면에 이 사건의 진실을 빛 속에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부영이 얼마 전 이 나라 정치판에 지쳐서 스스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을 보았다. 김승훈 신부는 생전에 자신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당신께서 다 아십니다”는 말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다. 우리가 해쳐온 1980년대와 90년대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그 말을 듣고 살았을까. 거짓과 위선, 불의와 기회주의로 살아온 사람들의 진실도 당신께서는 다 아신다는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김승훈 신부의 영전에 고해부터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서재, 세상을 말하다

정약용의 여유당(與猶堂)



박철상 문학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다.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차를 좋아한 다인(茶人)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호 ‘다산(茶山)’이 이를 말해준다. 본래 ‘다산’은 강진 유배시절에 거처하던 초가집이 있던 산의 이름인데, 정약용은 이를 자신의 호로 삼은 것이다.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쓴 대저술가이기도 하다. 그림에도 그의 저술은 생전에 간행되지 못했고, 돌아가신지 100년이 지나서야 ‘여유당전서’란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그의 문집에는 왜 ‘다산’이란 호 대신에 ‘여유당’이란 글자가 들어갔을까?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출세기도를

달리던 정약용에게 시련이 닥쳤다. 젊은 시절 천주학에 관한 책을 보고 연구했던 게 화근이었다. 유학자가 당시 이교로 지목된 천주학에 빠져든 게 문제였던 것이다. 정약용은 23세 때 처음으로 천주학을 접했지만 상군관에 들어가면서 천주학과 인연을 끊었다. 그러나 한 때 마음을 두었던 천주학은 결국 그의 인생 향로를 바꿔놓고 말았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그는 결국 짐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갔다. 1800년 봄의 일이었다. 고향에 돌아간 정약용은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았다. 임금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자신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을까? 세상은 두 가지의 일이 있다. 하나는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런 일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 또 하나는 자신은 하고 싶지만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자신이 좋아서 한 일이므로 자신이 알아서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다산에게 있어 천주학은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빠져들었지만 남들이 모르는 바를 배려하던 일이었다. 남들이 모를 것을 배려던 일이었기에 일찍이 하지 말아야 했

거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용감하지만 지략은 없고 좋은 것을 보면 앞뒤 돌아보지 않고 탐가는대로 행동에 옮겼다. 그러면서도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보지 않았다. 한 번 더 생각했다면 그만 둘 수도 있었는데, 마음속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 여겨 그만두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자신의 단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약용은 노자(老子)의 ‘도덕경’에 실린 이야기에서 답을 찾았다. “여(婁)가 겨울에 시내를 건너듯이 하고, 유(猶)가 사방에서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하라.” ‘여’는 큰 코끼리다. 겨울에 얼음이 얇게 언 시내를 육중한 코끼리가 건너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당연히 얼음은 깨지고 코끼리는 차가운 물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심조심 걸을 수밖에 없다. ‘유’는 아주 의식이 많은 동물이다.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언제나 조심스럽게 사방을 둘러보며 행동한다. 정약용은 ‘여유’처럼 조심스럽게 살아오지 못한 자신을 반성했다. 참으로 빠져

린 후회했다. 그리고는 서재에 ‘여유당(與猶堂)’이라 써 붙였다.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자 살아갈 날들을 위한 지표였다. 이후 정약용은 천주학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되었고, 18년이란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리고 서재에 붙인 ‘여유’의 의미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또 있겠는가? 하지만 그게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일이라면 곤란하다. 잘못된 일인지 의심해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서 한 일이니 잘못된 일이라면 스스로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정약용의 고민과 마주한다. 200년 전의 정약용은 2500년 전 노자의 말에서 해답을 찾았다. 정약용이 서재에 써 붙인 ‘여유당’, 우리에게 남긴 삶의 처방전이다.

양동욱의 ‘S칼럼’ 연재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재야의 인문학 교수’로 유명한 박철상 문학박사의 ‘서재, 세상을 말하다’가 새롭게 연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社說

금호산업 인수 동향 기업 간 ‘출혈경쟁’ 인쇄

금호산업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금호산업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곳은 호반건설, MBK파트너스, IBKS-케이스트 컨소시엄, IMM PE, 자베스파트너스 등 5개 업체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9일부터 5주간 금호산업에 대한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본입찰 제안을 제출하고, 산업은행은 4월 중순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제안 입찰 가격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전달되며 박 회장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1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면 금호산업은 박 회장 소유가 된다. 우리는 지역에 뿌리를 둔 금호와 호반건설 외 타업체가 인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금호산업은 금호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과 함께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금호산업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지분율 30.1%)이다.

금호그룹은 호남 유일의 대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고용 5000여 명, 도급 및 파견직원 1500여 명에 이들의 인건비만 연 3700억 원에 달한다. 국내 30대 대기업이 인수전 참여를 포기한 것도 지역 정서와 경영자 간 상도의를 고려한 배려에서다. 금호산업 인수에 나선 호반건설도 지역을 토대로 성장한 증권기업이다. 건설업 중심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진일보한 행보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동향 기업끼리의 ‘출혈 경쟁’은 어느 모로나 바람직하지 않다. 인수가격이 될 경우 이익은 채권단이 챙기고 그로 인한 부담은 지역 경제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호그룹이 과거 재계 7위였던 위상을 되찾고 호반건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이는 지역민의 뜻과 지역경제와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직업훈련기관 보조금 편취 철저히 단속을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직업훈련 위탁 교육기관과 사업주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직업훈련기관이 어린이집 14곳의 보육교사 직무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곳당 60만~200만 원 등 총 1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확인, 어린이집 100여 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미 관련자 150명을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 경찰은 지난 5일 직업훈련 시간을 부풀리거나 대리 수강을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 대표 김모(46)씨 등 117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1~2시간만 교육을 한 16시간 수강한 것처럼 부풀리는가 하면, 수강생 ID를 도용해 온라인 강의를 대리 수강하는 방법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으니 국고보조금이 왜 ‘눈먼 돈’으로 불리는지 이유를 알 만하다.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 사냥꾼’들이 국고보조금을 입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하겠다. 물론 감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모르면 않는다. 예를 들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감시해야 할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만도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훈련 진행 상황이나 실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누군가의 신고가 없다면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보조금 대상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서류 심사가 아닌 현장 실사를 의무화해 대상 사업 선정에서부터 비리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기고

인성교육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하자



이동범 미래교육발전포럼 공동대표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의 인성교육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의 교육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선진국가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또한 법 제정을 통해 책임있는 주인의식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우리가 바라는 인성교육은 머리로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관여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따르면 몸과 마음과 손발이 함께 움직여주는 인성교육은 습관화된 실천과 정서를 동반한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글자

로 이해하고 머리로 분석하는 윤리교육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인성은 추상적이고 성인군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일상 시민적인 것으로 습득하는 실천적 학습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고대에는 ‘내가 인생불변의 법칙을 배우게 된 것은 대학 학장시절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은 옛날이야기 속에서다’라며 어머니의 품속에서 사랑과 체험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먼저 가정에서 윤리교육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이 인성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입시의 틀과 진학률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사양성과 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계층, 이념갈등, 공동체적 붕괴, 범치주의 실종이라는 사회 병리 해결을 위해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옛날부터 우리들은 가족을 ‘식구(食口)’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가족끼리 밥을 같이, 자주 먹지 못한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서 어린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유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 대화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여 부모와 자녀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가족을 통해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아이들이 처음에 ‘관계’를 배우는 자리가 바로 밥상이다. 연장자가 먼저 수저를 뜨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 예절을 배웠다. 먹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먼저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천천히 먹는 속도를 맞췄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위로 받고 힘을 얻기도 했다. 그리고 형제자매끼리 서로 챙겨주며 배려하는 것을 배우가며 살았다. 그러나 요즘은 정작 자녀들과는 밥 한 끼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배려교육이 무심하게 되었으며,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아이로 하여금 배려를 배우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정에서 배려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집안일을 작게 나눠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근하는 아버지가 기본 풍도복 신발을 정리하거나 아침에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

머리를 빗겨주도록 하는 것이다. 마주치는 아파트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모와 소통을 가르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친구들과 고운 말을 쓰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여 우정을 쌓도록 하면 왕따나 학교폭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웃어른을 보면 공손히 인사하고 예절 바른 행동으로 어른심을 극진히 모시면서 양보와 배려 그리고 존중의 미덕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한 연구결과 ‘만 4, 5세 아이들이 가족에 대해 묘사하는 말을 연구해 보니 가정에서 다양한 집안일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취감 뿐 아니라 배려심도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어린 보호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대상으로 보고 집에서 다양한 훈련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심이나 존중심 그리고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은 바로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에서 시작하여 기초를 닦아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수립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범국민적으로 실천을 확산시켜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無 等 鼓

“글자마다 우렛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고(古)하고 졸(拙)하며 기(奇)하고 위(偉)하다.”

해방 후 이듬해인 1946년 우리 손으로 첫 실시된 광주 고분 발굴조사에서 고구려 ‘정동제 황아리(후우)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술사학자 김용준(1904~1967)은 호우 밑바닥의 16자 명문(銘文)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학계는 경주 지배층 무덤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 사후 의례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든 호우 왕의 아우 복호가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

서욱 12호고분

90cm가량의 철제대(鐵製大刀)만을 매장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접한 4호 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백제시대인 5세기 후반 영산강 상류에 자리한 담양 대전면 일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큰칼만 매장된 무덤과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된 유리구슬은 역사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

학술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작가들이 이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들을 창작해 백제사의 공백을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이렇듯 고분 속에서 출토되는 유물 조각 하나 하나는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담양군 대전면 중육리 서곡고분군 12호 분이 최근 시신없는 고분으로 확인돼 조서 경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하기 위해 만든 호우

대한문화재연구원의 학술 발굴 조사 결과, 시신을 매장하는 무덤 방을 만들지 않고 길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구독료 별도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인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 로 젝 트 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사 설 지 사 02-773-9331 사 02-773-9335 | 사 회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